

## 고려대본 <김희경전>의 이본적 특징과 가치\*

이후남\*\*

<차례>

1. 서론
2. 고려대본의 이본적 특징
  - 1) 입신양명을 우선하는 남주인공 부가
  - 2) 여주인공의 우월성 약화
3. 고려대본의 가치 및 위상
4. 결론

### <국문초록>

<김희경전>은 남성 영웅 김희경을 표제로 삼았으나, 그 실상은 여성 영웅 장설빙이 활약하는 여성영웅소설이다. 본고는 고려대본 <김희경전>의 이본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가치 및 위상을 정립해보고자 한 것이다.

고려대본은 완질본 9종과 대비해보았을 때, 여주인공의 역할 및 뛰어난 능력 부각 장면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남녀의 결연 태도와 군담에서의 활약상을 역전시킴으로써, 남주인공이 여주인공보다 우월성을 갖도록 설정한 이본이다. 그렇다면 고려대본은 완질 필사본 중 유일하게 남성의 우월성이 표출된 이본이며, 원본 서사의 적극적 개작 형태라는 점에서 이본적 가치와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이는 후대 독자의 반감 표출이라는 향유층의 수용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갖는다.

김희경전, 고려대본, 여성영웅소설, 우월성, 향유층

\* 본 논문은 2016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8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강사

## 1. 서론

<김희경전>은<sup>1)</sup>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담 및 영웅담이 결구된 여성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은 대략 28종의<sup>2)</sup> 이본을 보유하고 있다. 초창기 김만은은 당시 유포된 완질 5종과 낙질 14종의 현황 및 형태적 특징을 소개하고 작품 개요별 대비를 시도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본의 계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준식은 국중본 <김상서전>과 성대본 <김승서전>이 갖는 자료적 가치를 학계에 소개하는<sup>4)</sup> 한편으로 총 26종의 이본을 수집하여 일련의 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21종(필사본 19종, 활자본 2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계통을 밝혔는데, 서사의 생략과 번개 유무에 따라 ‘정명기본 계열(초기)-국중본 계열(중기)-성대본 계열(후기)’로 나누었다.<sup>5)</sup> 그리고 초기 이본 계열 중 낙질이지만 원전에 가장 가까운 김동육본 A·D·F를 조합하여 <김희경전>의 정본(定本)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sup>6)</sup>

한편, 강승묵은 필사본 22종과 연활자본 2종을 대상으로 이본 계열과

- 
- 1) <김희경전>은 <금환기봉>, <김상서전>, <장씨효행록>, <여중호걸>, <여자충효록> 등 다양한 이칭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희경전’이라는 표제의 이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본고의 대표 제명으로 사용하겠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작품 내용과 관련된 소설들을 토대로 ‘18세기 말’로 추정되고 있다.(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2008, 195~198쪽.)
  - 2)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8쪽. 이 중 북한본 5종과 여승구본, 국문활자본 <쌍문충효록>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목록으로만 전한다.
  - 3)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21쪽.
  - 4) 정준식, 「국립중앙도서관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한국문학논총』 44, 2006, 127~151쪽; 정준식,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요인과 자료적 가치」, 『어문학』 94, 2006, 241~269쪽.
  - 5)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2007, 237~274쪽.
  - 6)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55, 2013, 90~115쪽.

출간 양상을 재고하였다. 그는 낙질본을 제외한 완질본 9종(필사본 7종, 활자본 2종)을 통합 줄거리에 따라 1차 분류한 후, 다시 유통 방식에 의해 2차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이소저의 남장 행적’ 유무에 따라 ‘한중연본 유형’과 ‘성균관대본 유형’으로 이본군이 나뉘며, 비상업적 전승과 상업적 출판으로 이본의 성격이 분류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sup>7)</sup> 이 연구는 유통 방식에 따라 이본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숙대본 2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편 완질 필사본인 숙대본A의 출현에 힘입어, 최근 정준식은 숙대본A가 초기 이본 계열로 추정했던 ‘김동육본 계열(‘정명기본 계열’의 수정 명칭)’의 실존을 입증해주는 자료임을 밝혔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김동육본 계열’을 ‘숙대본A 계열’로 명칭을 재수정하고, <김희경전> 이본 계열을 ‘숙대본A 계열(초기)-국중본A 계열(중기)-성대본 계열(후기)’로 재조정하였다. 또한 숙대본A를 초기 이본을 계승한 유일한 완질본이자 선본(善本)으로 평가하고, 김동육본 A·B·D·E·F와 상호보완적으로 정본 구축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sup>

정준식의 지속적인 이본 연구는 <김희경전> 이본 계열의 시기별 분화·전승 과정과 변모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 목록으로만 전하던 충남대 소장본을 학계에 소개함으로써<sup>9)</sup>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7) 강승묵, 『<김희경전> 異本の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05쪽.

8) 정준식,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한국문학논총』 68, 2014, 93~112쪽; 정준식, 『숙대본 A를 활용한 <김희경전>의 정본 구축 방안』, 『어문학』 132, 2016, 141~164쪽.

9) 위의 논문, 141~147쪽. 정준식은 <충남대본>을 4권 2책이라 소개하였으나, 원본을 확인해본 결과 3권 2책(1책 권지상, 권지이/2책 권지삼)이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는 여러 이본을 취합하여 계열 및 계보를 상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이본 개개의 특성 및 동일 계열 내 이본의 특이점에 대해 제대로 천착하지 못하였다. 특히 완질 필사본인 고려대본에 대해서는 한중연·국중본과 계열이 같다는 것을 밝히고, 필사 오류를 지적하는 정도에만 그쳤다. 결국 세부적인 이본적 특징이나 변별점, 가치 등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고려대본은 타 계열 이본뿐만 아니라 동일 계열 내 이본과도 분명히 다른 지점이 포착되었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제대로 고구되지 않았던 고려대본 <김희경전>(4권 2책, 326쪽)만의<sup>10)</sup> 변별점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완질 필사본 7종<sup>11)</sup> 및 완질 활자본 2종과의<sup>12)</sup> 면밀한 이본 대비를 시행하고, 낙질본 16종은 보조 텍스트로써 활용하겠다. 본 논의를 통해 고려대본의 이본적 특징 및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10) 표제는 ‘金熙慶傳’이며, 내제는 ‘김희경전’이다. ‘明治 四十’이라는 필사기를 통해 볼 때, 1907년경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승묵(앞의 논문, 36쪽)은 고려대본을 A와 B로 나누었는데, A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완질본이고 B는 권지일만 보유한 1책 58장의 낙질본이다. (隆熙 三年[1909] 필사) 본고는 완질본만을 대상으로 삼기에 A와 B로 굳이 나누지 않으며, 본문에서 지칭하는 고려대본은 모두 완질본임을 밝혀둔다.

11) ①한중연본 <금환괴봉>(6권 6책, 376쪽), ②국중본 <김상서전>(4권 4책, 241쪽), ③숙대본A <김희경전>(3권 3책, 382쪽), ④성대본 <김승서전>(2권 2책, 224쪽), ⑤충남대본 <김희경전>(3권 2책, 306쪽), ⑥서울대본 <김희경전>(2권 2책, 264쪽), ⑦숙대본B <김희경전>(1권 1책, 254쪽).

12) 강승묵(앞의 논문, 31~33쪽)에 의하면 <김희경전> 완질 활자본은 신구서림본(1914) <녀중충효록>과 광문서시본(1917) <녀중호걸> 2종이 있다. 강승묵은 광문서시본(1917) <녀중호걸>의 동일한 판본으로 광문서시본(1917, 1922) <김희경전>이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더 조사해본 결과 세창서관본(1916) <녀중호걸>과 광문서시본(1922) <충효록의 녀중호걸> 역시 같은 판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①신구서림본(1권 1책, 73쪽)과, 동일한 판본 중 연대가 가장 앞선 ②세창서관본(1권 1책, 120쪽)을 대본으로 택하였다.

## 2. 고려대본의 이본적 특징

본 장에서는 <김희경전>의 핵심 서사인 ‘남녀 결연’과 ‘출장입상’ 대목을 중심으로 <고려대본>과 나머지 9종의 이본을 대비해 보겠다. ‘남녀 결연’은 김희경-장설빙의 만남 전후 상황 중에서, ‘출장입상’은 김희경-장설빙의 관리로서의 대내외적 활약상 중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대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 1) 입신양명을 우선하는 남주인공 부각

남녀 주인공인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 전후 상황 중, <고려대본>만의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는 대목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표-1

	한중연본 외 8종	고려대본
① 김희경 부모의 머느리감 찾기 소망	○	×
② 김희경이 장설빙에게 연연함	○	×

①은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 전 상황이다. 서사 초반부에 김희경의 부모는 김희경에게 상경(上京)할 것을 권유한다. 이때 <한중연본> 외 8종은 그 1차 목적이 아내감 찾기이고, 부수적인 목적이 과거 응시로 나타난다.

표-2

이본 명칭 및 면수	① 김희경 부모의 머느리감 찾기 소망
가. <한중연본> 권지일 3a	평장 부부 칭을 불너 닐오되 “네 임의 장성헌여시니 실가를 맞비 정홀 거시오되 본디 하람은 적은 썩히라 인물이 쇼쇼헌니 너와 갓튼 빵이 업슬지라 경성의 너의 외숙 석 티위 잇시니 올너가 츠져 우리 고독홀를 전호고 너의 빅필을 구헌면 장안은 변화지지라 너의 빵이 잇시리니 명문되가의 숙녀를 구헌야 우리 마음을 위로호고 버거 계화를 찍거 쥌선의 영화를 짓치면 이 곳 우리의 원호는 비라 네 썩은 엇더뇨” <sup>13)</sup>

<p>ㄴ. &lt;국중본&gt; 권지일 3~4</p>	<p>평장 부피 싱을 불너 이로되 “네 임의 장성허여스니 실가를 빗비 정할 거시로되 본디 하람이 저근 싸회라 인물이 쇼쇼허니 너와 갓튼 쌍이 업슬지라 경성의 가 너의 외숙 석 티우 잇스(니) 경성의 울노가 석티우 을 츠즈 우리 고독허를 정[전]허고 너의 비필을 구하면 장안은 변화지 지라 일물이 만흔 고지니 너히 직조를 저버리지 으니(리)라 명문디 가의 숙여 구하여 우리 마음을 위로허고 버거 청년의 계화를 썩거 영화를 기치면 이 곳 우리의 원한난 비라 네 뜻의는 엇더허요”</p>
<p>ㄷ. &lt;숙대본A&gt; 권지상 2a~2b</p>	<p>부피 봉황지나니 더디를 염예하여 회경다려 니로되 “네 장성허미 의가 지나니 밧분지라 하람 궁항의 숙례 업스린니 싱각건디 네 경성의 울나 가 너의 외숙 공을 츠자 우리 고독허를 전허고 장안 변화헌 쌍의셔 요조숙녀를 구하여 너의 비필을 정허라 석 티회 쏘한 명현지상인니 일경광구하여 너의 직품을 저바리지 안니혈인이 우리 마음을 위로허고 버거 계화를 썩거 죠선을 현달허미 우리 쇼망니라 네 뜻은 엇지코져 혼는다”</p>
<p>ㄹ. &lt;성대본&gt; 권지상 2a~2b</p>	<p>어서 평중 부쳐 싱을 불너 이로되 “네 이제 중성허지라 가취 느껴가미 우리 근심이 적지 아닌지라 그러나 허람은 본디&lt;디&gt; 편방이오 인물이 희쇼허니 실노 봉황이 업살지라 경성의 너의 외숙 석 티우 이스니 그를 츠자 우리 고독허를 이르고 네 비필을 구하면 장안 변화한 곳의 일경 네 직조를 저바리지 아닐지니 명문디가의 요조숙녀를 구하여 우리 마음을 위로허고 버거 금문옥당의 계화를 썩거 선조의 영화를 짓치미 우리 원이라 네 뜻의 엇셔허냐”</p>
<p>ㅁ. &lt;충남대본&gt; 권지상 3a~3b</p>	<p>츠시 평장 부피 회경을 불너 왈 “네 지금 장성허여 혼취 느껴가미 우리 근심이 적지 안인지라 연이나 할님[하람]은 본디 적은 싸나라 인물이 희구허니 실노 봉황의 쌍이 읍슬지니 경성의 네 외숙 석 티후 잇스니 그을 츠즈 우리 고단허를 니르고 네 비필을 구허라 경성은 변화헌 곳시 라 네 직조를 일경 버리지 아니홀지라 명문디가의 요조숙녀를 취하여 우리 마음을 위로허고 버금은 옥당의 계화를 썩거 선조의 영화를 뵈미 나의 원이라 네 뜻시 웃더허요”</p>
<p>ㅂ. &lt;서울대본&gt; 권지일 3b~4a</p>	<p>오죽 요조숙녀를 가려 비필허고즈 허나 하남 소자의 명문디가 중 숙녀를 용이허 엇지 못허미 부인과 날노 근심허더니 회경이 엇즈오디 “남이 일즉 취쳐허오면 공뵈 부실허고 공명이 더되다 허오니 쇼즈의 년고 슬오의 지나지 못허온지라 복망 부모는 과도가 넘너치 말아쇼셔” 평장이 왈 “별노이 넘너 아니라 이곳의 너와 갓튼 비필이 업살가 근심허노라” 회경이 엇즈오디 “쇼즈의 용우허은 직질노 엇지 숙녀를 바라오리 있고 다만 부모 슬하의 공명얼 일위여 영화를 뵈오미 원이로쇼이다”</p>
<p>ㅅ. &lt;숙대본B&gt; 권지단 3b~4a</p>	<p>날노 사랑허미 그지업서 여진 숙여를 갈회고져 허나 허남 소자의 명문디기[기]의 숙여 쉽지 안일가 날노 근심허더니 회경이 엇자오되 “남아 세상의 나서 일즉 취쳐허오면 공부도 글림습고 공명이 늣다 허오니 소자의 연이 심오세라 부친은 과렴치 마음소서” 평장 왈 “달나 염녀 아니라 이 갓튼 좁은 곳의 너와 갓튼 비필이 읍살가 근심허노라” 회경</p>

	이 엿조되 “소즈의 용열흔 직조로 웃지 숙여를 바라올잇가 공명을 일위 부모 슬흐의 영화를 뵈올가 원이로소이다”
○. <신구서림본> 1	평장 부부 그와 갓튼 비필을 구하야 원양에 짝으로 노는 락을 보라 호되 가합흔 데가 업서 미양 탄식호더니 하로는 회경을 압해 안치고 가로되 “회경야 하람은 디협 인소호야 너의 비우를 구하기 어려오니 너는 서울 올라 가서 척숙 되시는 석 상셔를 뵈옵고 우리에 고독호를 말하고 너의 비필을 구하야 달나 호면 석 상셔는 명현호 직상이라 너를 위호야 쥬선호면 너의 문진을 저바리지 안이호고 쏘 월중단계를 썩거 쥬선을 현달호리니 너의 뜻이 엿더호냐”
ㅈ. <세창서관본> 3	평장 부부 회경을 불[불]너 이로되 “네 임의 장성호었는지라 가취 느껴 가미 우리 근심이 적지 아니호나 호람은 분디 적은 사히라 인물이 회귀 호며 실노 봉황 업슬지라 경성에 너의 외숙 석 턱위 잇스니 네 차즈 가 우리 고단호를 이르고 네 비필을 구호면 장안은 변화지디라 너의 직조를 일경 바리지 아니할지니 명문디가에 요쥬숙녀를 구하여 우리 마음을 위로호고 금문우당에 계화를 썩거 선조에 영화를 끼치면 우리 영희이라 뜻이 엿더호뇨”

위의 표를 보면 ㄱ~ㄴ 이본은 김희경의 부모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하남 땅이 협소하여 김희경에게 맞는 아내감을 찾지 못할까 근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김희경에게 경성으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외숙에게 중매를 부탁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과거에도 응시하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김희경은 곧바로 명을 받들어 집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ㄷ과 ㄱ은 김희경 부모의 며느리 찾기에 대한 염려가 앞의 네 이본보다 더욱 간절히 드러난다. 이에 김희경은 아내를 맞이하면 공명을 이루는 일이 늦어진다면 부모를 위로하고, 하루빨리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끼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 ㅈ 이본은 개작과 축약이 심한 활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만큼은 ㄱ~ㄷ의 이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9종의 이본 모두 김희경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찾기에 대한 근심이 표출되어 있다

13)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밑줄, 교정기호([ ] : 오자 교정. ( ) : 인명 주. < > : 불필요한 글자. { } : 결락된 글자. □ : 판독 불가.) 필자. 이하 동일.

할 수 있다.

반면 <고려대본>은 김희경의 상경 목적이 순수하게 과거 응시로만 되어 있으며, 아내감을 찾을 것에 대한 부모의 당부나 그에 대한 김희경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고려대본> 권지일 2b: 일일은 평장이 희경다려 왈 “드르미 나라으로써 설과한다 하니 너는 빳비 올라가라” 하고 서찰을 닥가 주며 왈 “너희 외숙 석 티후 경성의 이슨 지 여러 히의 한 번도 쇼식을 모르니 이 편지를 전하고 과거볼 썻을 통헌 즉 범스를 만다시 주션히리니 김히 간슈히여 실슈치 말나” 헌디 공즈 바다가지고 직비하직헌 후 집을 썻날식

위의 예문을 보면 김희경의 부친이 김희경에게 상경하여 과거를 보라고 하면서, 외숙에게 전할 편지를 써준다. 그런데 앞서 살핀 대다수의 이본들은 외숙에게 요조숙녀의 중매를 부탁하는 데 비해, <고려대본>은 오직 과거 준비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이처럼 <한중연본> 외 8종이 <고려대본>과 달리 며느리감 찾기에 대한 근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중연본> 외 8종이 내조할 아내의 중요성 및 가정을 이끌 총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곧 총부권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희경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여성 주인공 장설빙의 등장 에 대한 복선으로 읽힌다. 반면 <고려대본>은 과거 응시를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남성의 입신양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아내감 찾기는 그에 따라 오는 부수적인 것이라 여겨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의식이 더욱 짙게 깔려있다.

다음으로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 후 상황인 ②의 대목을 살펴보자. 김희경과 장설빙은 객점에서 인연을 맺고 신물을 교환한 후 이별을 한다.

이때 <한중연본> 외 8종을 보면 김희경이 이별을 맞이하여 매우 연연해 하고, 장설빙은 애써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표-3

이본 명칭 및 면수	② 김희경이 장설빙에게 연연함
가. <한중연본> 권지일 26a~26b	<p>언답이 첩첩하나 정회를 다 퍼지 못하여 <u>빅일이 셔산의 셔러지니 쇼계 영춘을 도라보와 왓 “날이 임의 느껴시킴 이의 하직을 고희느니 후회를 괴약호쇼셔”</u> 심이 은경이 하히 갓트나 오리 머므지 못할 줄 알고 비로쇼 이러 하직하여 …… 양구히 쇼져를 바라며 어린다시 셋다가 <u>의의히 몸을 도로혀 가니 쇼계 목목하나 설낭 영춘은 니별을 결연호야 츄탄호를 마지아이호더라 심이 각실의 도라와 힝이를 수습호야 잇튼날 경성으로 향홀시 심통의 인연호 정을 굿지 못하여 시쥬를 일습어 수심을 슬오더라 이썸 쇼계 심을 보닌미 마음이 결연하나 스식지 아니호고</u></p>
나. <국중본> 권지일 34~35	<p>엄[언]답이 첩첩하여 정회를 다 퍼지 못하여셔 <u>빅일이 셔산의 셔러지니 쇼계 영춘을 도라보와 왓 “날이 임의 느껴스니 이의 하직을 고희느니 이후 회을 괴약호쇼셔”</u> 심이 은경이 하히 갓트나 오리 머므지 못할 줄을 알고 비로쇼 학[히]직왓 …… 양구히 쇼져를 바라며 어린드시 셔셔가 <u>의의히 몸을 도로혀 가니 쇼계 목목하나 설낭 영춘은 이별을 결연하여 츄탄호를 마지아이호더라 심이 각실의 도라와 힝이를 수습호야 잇튼날 경성으로 향홀시 심통의 인연호 정을 굿지 못하여 시쥬를 일삼은 수심을 스로더라 이썸 쇼계 심을 보닌미 마음이 결연하여 중중하나 스식지 오이호고</u></p>
다. <속대본A> 권지상 18b~19a	<p>니러듯 문답하여 일영니 기올미 쇼계 인연을 두려 영춘으로 니별을 전하여 왓 “<u>날리 늦저스니 청컨디 도라가스 훗 괴약을 잊지 말로쇼셔</u>” 혼디 심니 은경니 여산하나 이 곳지 유련헐 곳지 안니라 상심보 중호를 지습 부탁호고 …… 인하여 쇼계를 향하여 기리 알영호를 니로고 &lt;왓&gt; 몸을 니러 나간니 설낭 영춘니 못니 차탄하여 니별을 결연하여 호드라 심니 각점의 도라와 행[힝]니을 수습하여 닛튼날 경사로 향홀시 마음의 셔위호 정을 굿지 못허드라 어시의 쇼계 김힘을 니별호고 심하의 심니 결년하나 사식지 안니호고</p>
라. <성대본> 권지상 17b~18a	<p>허다설화를 다 못하여셔 무정한 빅일이 스람의 괴회를 시긔하여 일모셔스스니 <u>춘이 청명하여 김침게 고희어 왓 “날이 임의 느껴스니 타인이 고히 여길지라 청컨디 평안이 가쇼셔 후기를 괴약호쇼셔”</u> 심이 비록 은근호 정이 하히갓트나 머므지 못할 줄 알고 비로쇼 몸을 이러 은근히 하직하여 왓 “<u>탐탐한 정회를 다 못호고 결연이 셔나오니 쇼져난 금옥 갓튼 몸을 보중호울연이와 조심하여 나의 단심을 저발이지 말오쇼셔</u>” 심이 다시금 <u>심각하미 훌훌호미 칭낭업고 셔오호미 무궁하여 …… 양구이 쇼져를 바라보며 어린다시 셋다가 이별코 각</u></p>

	<p>실의 도라와 힝니를 슈습혀 잇뜩날 경성으로 향할시 넘넘한 마음 을 이기지 못하여 시쥬로 벗슬 습고 슈회를 스토드라 츠셜 쇼져 싱을 보닉고 쏘흔 결연흔 정을 금치 못하나 슝익의 니지 안잇고</p>
<p>ㄱ. &lt;충남대본&gt; 권지상 25b~26a</p>	<p>허다설화를 다 못하여 무정한 빅일이 슝의 기회를 식히하여 일모 셔스흔니 소제 해오디 타인의 괴소를 입을가 두려 춘을 도라보와 니 별을 전흔니 싱이 머무지 못홀 줄 알고 몸을 니려 은근이 흐직할 “답 답흔 정회를 다 못하여 훌훌이 썬오니 쇼져는 옥체를 보듯흔스 일 편단심을 저버리지 말아쇼셔” …… 종종 쇼져을 도라보니 양인의 정 회는 일월리 감동홀너라 싱이 어릿듯시 셔다가 다시 하직흔드 깃실 의 도라와 힝니을 츠려 경성을 향할시 연연흔 정을 니기지 못하여 시쥬로 벗슬 습아 슈회를 풀더라 츠셜 장소제 김싱을 니별하고 힝장 을 슈습혀여 탁쥬로 향흔니라</p>
<p>ㄴ. &lt;서울대본&gt; 권지일 20b~21b</p>	<p>츄아 니별얼 고치 못헝믹 이러구러 일모석양이라 영춘다려 닐너 왈 “그디의 정심은 임의 알아겨니 부디 쇼져를 갈츄보호홀지여다” 헝며 설날얼 다시 도라보아 왈 “만만보중혀여 일호도 쇼홀홀이 업게 헝 라” 헝고 몸얼 일어 완완이 나아갈시 일년의 인연혀여 츄아 잇지 못 흔는 형상이 외면의 낮하나더라 쇼져는 즐즐흔고 안긔스나 청산 아 미의 슈습이 일어 곁음이 가리우논지라 영춘은 문의 나아가 천만보 중헝기를 고흐고 못니 장연혀여 니별얼 슬휘헝더라 싱이 하쳐의 도 라와 힝니를 슈습혀여 길의 읍고 장소져 노쥬 습인이 천신만고혀 여 슈월의 탁쥬에 이르러 명시랑 부중얼 츠즈니</p>
<p>ㄷ. &lt;숙대본B&gt; 권지단 25a~25b</p>	<p>이러구러 일모석양이라 서로 이별할시 영춘다려 왈 “그디 정심을 아 나니 반다시 소결[저]을 보호하러이와 다시 조심하라” 쏘 설날을 길 리 무양흔를 일러고 몸을 일러 완완이 나아가니 쇼져는 무언니요 영 춘은 못니 칭찬헝며 이별을 스러헝더라 싱이 깃실의 도라와 힝이를 슈습혀야 경성으로 향흔니라 장소져 쏘 힝이를 거두어 탁쥬로 가 명 시랑을 차차오니</p>
<p>ㄹ. &lt;신구서림본&gt; 15~16</p>	<p>쇼져 청과에 춘낭으로 리별을 청혀여 왈 “원컨디 도라가스 후기를 잇지 마르쇼셔” 싱은 경이 산긔하나 방신을 보중흔를 지습 당부헝고 …… 쇼져를 은은히 보와 안향흔를 청헝고 외와[완완]이 흥헝니라 츠시 쇼져 싱을 보닉고 급히 힝리를 슈습혀야 가지고</p>
<p>ㅈ. &lt;세창서관본&gt; 18~19</p>	<p>이러구러 날이 느즈믹 가연이 몸을 이러 쇼져를 향혀여 하죽을 일우 며 보중흔를 당부헝며 왈 “썬나히 결연흔스 소제 불안흔를 짐작헝미 로소이다” 헝며 연연하물 마지못헝다가 슝미를 썬쳐 완완이 나아가 니 쇼져는 잠잠하나 영춘 등은 그 정덕하물 츠탄헝더라 싱이 깃점에 도라와 힝니를 슈습혀여 경성으로 향할시 쇼져의 신세를 유편흔니 무엇을 일흔 듯 허슈섭헝하물 정치 못하여 스스로 시쥬를 읍과 슈회 를 풀더라 잇썬 장소제 김공즈를 이별헝고 길을 썬느 도도발헝혀여</p>

ㄱ~ㄴ과 〇 이본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장설빙이 먼저 김희경에게 이별을 고한다. 그러자 김희경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머뭇거리다가 떠나고, 장설빙은 슬픔을 애써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ㄴ, ㅅ, ㅈ은 김희경이 장설빙에게 먼저 이별을 고하긴 하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연연해하며 이별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걸어 나가는 모습이 묘사된다. 반면 장설빙은 얼굴에 수심이 어리긴 하였으나 묵묵히 참고 있어, 시비인 영춘이 매우 슬퍼했다는 서술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ㄱ, ㄴ, ㄷ, ㅈ에는 객점으로 돌아온 김희경이 장설빙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주(詩酒)를 일삼았다는 서술이 추가되어 있다.

반면 <고려대본>은 김희경이 먼저 장설빙에게 이별을 고하고, 장설빙이 이별의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대본> 권지일 19b~21a: 공즈 황공혀 바다 낭중의 장호고 사려 [례]왈 “…… 말삼이 첩첩혀 정이 산히갓스오나 무정현 홍일이 서산의 저물고져 호오니 후일 다시 모이물 바라옵나이다” 쇼져 또한 타인의 우음을 바들가 두려 영춘으로 하여금 이별을 고향여 왈 “날이 임의 저무러싸오니 청컨디 평안이 힘츠호사 후일 언약을 잊지 마르쇼셔” …… 공즈 곶턱 잇다가 허다헌 설화을 듯고 기리 읊혀 왈 “쇼져의 호시는 비을 보오니 목석이 아니어든 엇지 비창치 아니리오 그러나 천금지구를 보중호사 후일 서로 만디 길을 기다리옵쇼셔” 답왈 “첩의 일상을 오늘날 낭군의의 의탁호옵나니 더럽다 바리시면 홍안박명이 속결업시 빅두음을 불을가 호나이다” 공자 직삼 위로현 후 하직고 경성으로 향혀 가니라

위의 인용문을 보면 김희경은 장설빙에게 신물을 받은 후 곧바로 먼저 이별을 고한다. 이에 장설빙은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탁문군의 백두음

(白頭吟)에 비유해가면서까지 훗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장설빙의 이러한 발언은 <한중연본> 외 8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처럼 <고려대본>에만 이별에 연연해하는 장설빙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여자인 장설빙이 남자인 김희경보다 담담하게 이별의 슬픔을 감내함으로써, 장부다운 기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곧 장설빙이 김희경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주인공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려대본>은 여성 주인공의 여린 감정 및 남성에게 일생을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부각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김희경이 장설빙보다 묵묵히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결연보다는 입신양명을 더 중시하는 남주인공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의 대목과 상통하고 있다.

## 2) 여주인공의 우월성 약화

김희경과 장설빙은 동방급제하여 관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데, 그들이 대내외적으로 활약하는 부분 중에서 <고려대본>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한중연본 외 5종	서울대본, 숙대본B, 신구서림본	고려대본
③ 장수정이 연왕을 경계함	○	△	×
	한중연본 외 7종	숙대본A	고려대본
④ 장수정이 김희경을 구출함	○	△	×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봄날 황제가 후원에서 신하들과 시회(詩會)를

별이는데, 이때 장수정[장설빙의 남장 이름]에게는 연왕 사부, 김희경에게는 제왕 사부의 직책이 내려진다. <한중연본> 외 5종에는 장수정이 연왕의 잘못을 준엄하게 질책하는 ③의 대목이 존재한다.

표-5

이본 명칭 및 면수	③ 장수정이 연왕을 경계함
가. <한중연본> 권지이 36a~ 36b	<p>왕(연왕)이 궁의 가다가 스부의 옥모를 여어보다가 눈이 마쵸치여 몸을 도로 피허거늘 …… 연왕을 청하야 경계왈 “당수정이 비록 용넬허나 던하의 스부지명이 잇는지라 던하를 인도호오미 추호도 비레를 힝허미 업거늘 던히 엇지 듯지 아니시고 문을 들미 조쵸를 가만이 허여 스통의 힝저를 여어보시니 이 일은 실노 명교의 업는지라 추후는 이런 힝실을 고치쇼셔” 연왕이 경계를 듯고 소죄허더라 이후 연왕이 므스를 조심히야 그르미 업게 하니 기리는 쇼릭 들니더라</p>
나. <국중본> 권지이 24~25	<p>학식(장수정) 영[연]왕의 나오가니 연왕이 여어보거늘 호련 눈이 마도 치미 연왕이 피허거늘 …… 연왕을 정[칭]하야 경[경]계왈 “장쇠슈정이 비록 용넬허나 던&lt;하&gt;의 사부지명이 잇는지라 전하를 인도호미 추호도 비레[레]을 힝허미 업거늘 전하 엇지 듯지 아니시고 문을 들미 종격을 가마이 허야 스통을 여어보시어 일은 실로 명교의 업은 지라 차후는 이런 일을 고치시고 명도를 힝호쇼셔” 하고 안식이 멩디 하니 연왕니 말을 듯고 사죄허더라 상셔(김희경) 쯤 혼사의 업정허를 칭찬하고 니후는 연왕니 조심히야 그르미 업더라</p>
다. <숙대본A> 권지중 22b~ 23b	<p>어서에 연왕니 녀전의 들어갓다가 날니 저문 후에 나와 사부 잇스며 읍스물 살피든이 호련니 눈니 마쵸치미 놀나 몸을 도로 리혀 피허거늘 …… 좌우이니 연왕을 붓들고 나오거날 학식(장수정) 멩허여 쏘리고 코[크]계 경계허여 왈 “장수정니 비록 용넬허나 국가디신니요 전하의 스승이라 황상니 전하를 맞기스 정도로 인도허라 허시디 추호도 밧[비]에도 힝허미 읍거날 전하의 종격니 문을 들미 도로해[헤] 가만니 몸을 피허니 실노 예되 안니라 그 자취을 남이 알아스면 얼굴을 단정니 하고 말숨을 나죽니 허여 허물을 자척허면 스승된 지 도로해[헤] 황공허여 의리로 기유허시어 전히 공교니 여어보시고 몸을 피허시니 힝실니 췌췌헌 일니 안닌니 성교을 저바리미라” 좌우을 멩허여 큰 므를 가져올라 허여 친니 므를 췌우고 달초 니십 도을 친니 옥 거든 다리에 유헐니 낭자허거날 왕니 경신니 혼미허여 그 글웃허를 인걸허 되 듯지 아이허거날 상셔(김희경) 연망이 나아가 므를 잡고 개[기]유허니 학식 비로쇼 므를 늦코 일장을 경계허니 괴상니 엄엄허고 위풍니 밧열허여 설상의 찬바람니 쇼슬험 갓튼니 상셔와 계이니 그 강즉허물 못닉 칭찬허들라 …… 왕니 쯤한 조심히허 글웃허미 읍드라 김상셔 장학스에 강즉정디허를 보고 못닉 탄복허더라</p>

<p>ㄹ. &lt;성대본&gt; 권지상 66a ~ 권지하 2a</p>	<p>일일은 왕(연왕)이 너궁의 드러갓다가 저물기야 나올시 그 사부 유부 를 엿보다가 문득 눈이 맞초되 놀나 피흐거날 …… 이윽하여 좌위 연왕을 붓드러 드리니 학시(장수정) 명하여 쏘니고 크게 경계왈 “수정 이 비록 용넢흐나 국가의 디신이오 전흐의 스싱이라 황상의 명을 밧 자와 정도로 전흐를 인도할시 조금도 비례를 힝흐미 업거날 전흐 엿 지 듯지 아니시며 빅오지 아닌 힝실을 흐사 문을 열며 종격을 가마니 흐여 사람의 동지를 엿보시니 이런 명교난 업난지라 전흐 미록 괴로 오미 이사나 사제 의를 싱각흐여 안식을 정히 흐며 순히 흐사 의로써 기호힐 것이어날 전흐 문득 눈을 드러 사람을 보고 도로 몸을 피흐시 니 이난 극히 성도의 힝실이 아니라 그옥히 전흐를 위흐여 취치 아니 흐너이다” 흐고 경계흐니 그 괴식이 엄엄흐고 위풍이 늑넢한지라 …… 한림(김희경)이 학사의 정직흐물 보고 황공흐여 공경흐물 션싱 갓치 덕접흐니 만죄 다 두려흐고 인인이 다 추존흐드라</p>
<p>ㅁ. &lt;충남대본&gt; 권지삼 5a~6b</p>	<p>일일은 연왕이 너궁의 드러갓다가 저물게 노으며 금스부를 엿보다가 문득 눈이 맞초되 놀나 피흐거늘 …… 의관을 정제흐고 좌우를 호령 흐여 왕을 닛입흐라 하니 호령이 추상 갓튼지라 연왕을 계흐의 쏘니 고 크게 경계왈 “수정이 비록 용우흐나 국가디신이오 전흐의 스승이 라 황상의 명을 밧자와 정도로 교훈흐여 조금도 비례를 힝치 아니 흐여늘 전히 엿지 비례의 힝실을 흐스 문을 열고 종격을 가만니 흐여 스름의 동지를 엿보시니 니는 정도의 어진 힝실이 아니라 그옥키 전 흐을 위흐여 한심흐여이다” 언프의 물니치이 격격이 엄엄흐고 위풍이 늑넢함이 좌우제신이 두려 아니 리 업드라</p>
<p>ㄴ. &lt;서울대본&gt;</p>	<p>없음.</p>
<p>ㄷ. &lt;숙대본B&gt;</p>	<p>없음.</p>
<p>ㄹ. &lt;신구서림본&gt;</p>	<p>없음.</p>
<p>ㅈ. &lt;세창서관본&gt; 65~66</p>	<p>일일은 왕이 너궁에 드러가 접을게야 나올시 그 스부 유모를 엿보다 가 눈이 맞초였는지라 놀나 피흐거늘 …… 이윽하여 좌우 연왕을 붓 드러 드리니 학스(장수정) 명하여 쏘니고 크게 경계왈 “수정이 비록 불민이나 국가디신이오 전하에 션싱이라 황상에 명을 밧자와 덩도로 전하를 인도할시 조금도 비례를 힝치 아니흐얏삼거늘 전하 엿지흐 써 빅오지 아닌 힝실을 츠즈 문을 여러 종격을 가만니 흐여 사들에 동지를 엿보시니 이런 명교는 업는지라 전하 비록 괴로오시나 잠간 사제지어[예]를 싱각흐스 인식을 정이 흐시며 말슴을 순이 흐스 의로 써 기유할 거시어날 전하 문득 눈을 드러 사람을 보시고 도로 피흐시 니 이는 성도에 힝실이 아니라 그옥히 전하를 위흐와 혼심흐여이다” …… 학사 이후로 경계흐여 마르치니 왕이 쏘흐 조심흐야 그릇함이 업스니 기리는 소력 너외에 진동흐드라. 한림(김희경)이 학사에 정직 함을 보고 황공흐여 공경함이 극진흐고 만조 다 두려워 흐드라</p>

위의 표를 보면 9종 중 총 6종의 이본에, 연왕이 장수정을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장수정이 연왕을 불러 정대한 말로 경계한 후, 연왕이 매사를 조심하며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서술된다. 그리고 ㄷ, ㄹ, ㅅ은 다른 이본들보다 장수정의 훈계의 말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ㄷ에는 장수정이 직접 매를 잡아 연왕의 종아리 이십 대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습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예문을 생략하긴 했지만, ㄷ~ㄹ에는 장수정이 연왕 질책에 대해 황제에게 사죄하는 표를 올리고 황제가 오히려 칭찬해주는 비답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정의 연왕 경계’ 대목은 ㄷ(<서울대본>), ㅅ(<숙대본B>), ㄹ(<신구서림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황제가 내린 작위의 차이에 기인한다. 먼저 <서울대본>에는 애초부터 김희경과 장수정의 직책 하사 장면이 없기 때문에 연왕 경계 대목 역시 부재된다. 그리고 <숙대본B>는 장수정이 연왕 사부, 김희경이 제왕 사부의 직책을 받는 대목이<sup>14)</sup> 있기는 하지만 연왕 경계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숙대본B>가 완질 필사본 중 가장 적은 1권 1책 분량의 이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왕과 제왕이 두 스승을 공경했다’는 정도의 의도적인 서술 축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신구서림본>에서는 장수정이 병부상서, 김희경이 이부상서의 직책을 맡는 것으로 설정된다.<sup>15)</sup> 그런데 대다수의 이본에서 장수정은 연왕

14) <숙대본B> 권지단 79b~80a: 당슈덤으로 틈즈 연왕의 사부를 정하고 김희경으로 제왕의 스승을 삼아 정도로 양왕을 가라치라 하시니 양인이 탐하의 나라 쥬왕 신 등이 연쇼흐 읍고 직조 둔흐오를 상달흐되 상이 듯지 아니시미 마지못흐여 궁등의 나아가 양왕을 가르칠시 업슈식식혀 조곰도 스사로미 업난지라 연왕과 제왕이 가장 공경흐더라

15) <신구서림본> 44: 춘설 상이 장 학스와 김 한림의 춤직흐를 스랑흐스 김희경으로

사부 직책을 받기 이전에 병부상서의 직책을 제수 받는다. 그렇다면 <신구서림본>은 <숙대본B>와 같이 1권 1책의 적은 분량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연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통째로 탈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이본은 이 대목 이외에는 나머지 6종 이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본>과 <숙대본B>, <신구서림본>의 연왕 경계 대목 탈락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도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반면, <고려대본>은 특정 의도가 반영되어 이 대목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본> 권지이 16a: 제신이 일시의 글을 지어 드린듯 황제 어람하시  
 미 김희경과 장수정 글이 빅노의 썬여나 광활 뜻이 창희 갓튼지라 상이 크고  
 칭찬왈 “경등은 짐의 수족지신이로드” 하고 장수정으로 병부상서 겸 연왕을  
히이시고 김희경으로 제왕을 봉하스 양인이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섬기드니  
 일일은 한가호물 인하여 넷일을 생각할시 문득 북희의 가실 지 노인(소 참  
 정)의 은혜을 생각하고

황제가 김희경과 장수정의 글을 크게 칭찬하고 직책을 내리는 대목이다. 앞서 살핀 6종의 이본은 이 대목 이후에 장수정의 연왕 경계 에피소드가 삽입되지만, <고려대본>은 곧바로 ‘장설빙이 소 참정의 은혜를 떠올리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고려대본>에서 김희경은 ‘제왕’에, 장수정은 ‘병부상서 겸 연왕’에 봉해진다는 것이다. 남녀 주인공이 제후의 사부가 아닌, 제후의 봉작을 동등하게 받는 이본은 <고려대본>이 유일하다. 따라서 <고려대본>에서는 장수정과 연왕의 에피소드가 삽입될 수 없게 된다.

---

리부상서를 히이시고 장수정으로 병부상서를 히이시니 낭인에 은총이 당세에 당히  
 리 업더라

그렇다면 <고려대본>의 필사자는 직책 하사 대목부터 연왕 경계 대목에 이르기까지의 장수정의 뛰어난 역할 부각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김희경은 상대적으로 무능력하고 장수정보다 감식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ㄱ~ㄴ, ㄷ 예문 중간의 생략 부분에서 김희경은, 연왕이 눈을 피하고 달아난 이유가 자신과 장수정이 먼저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황제의 질책을 받을 것을 걱정한다. 그러자 장수정은 김희경의 이러한 겁쟁이 같은 모습을 비웃는다.<sup>16)</sup> 또 ㄴ~ㄷ, ㄹ 예문의 말미를 보면, 장수정의 공명정대한 행동에 김희경이 결국 탄복하고 공경하였다는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대본>은 여성인 장수정이 황제의 아들을 엄하게 훈육하고 그에 대해 김희경이 승복했다는 서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상황 판단이 뒤떨어지는 김희경의

16) <한중연본> 권지이 36a~36b: 상셰(김희경) 권왈 “연던히 드러오다가 연고 읍시 도로 가시니 이 필연 우리 먼저 맛지 아닌가 혐의라 후일 황상의 엄칙이 계시리니 형은 무례히 말나” 학식(장수정) 심중의 상셔의 겁흔을 웃더니 /<국중본> 권지이 24: 상셰(김희경) 권왈 “연전의 영[연]왕이 드러오다가 도로 가시니 이는 필연 우리 먼저 맛지 아니흔를 혐의히미라 후일 황상의 엄칙이 계시리니 형은 무례히 말나” 학식(장수정) 심중의 상셔에 겁흔을 웃더라 /<속대본A> 권지중 22b~23a: 상셔(김희경) 문왈 “연왕이 들어오다가 연고 읍시 도로 나아가니 필연 우리 친이 맛지 못힐물 혐의히미라 후일 황상니 칙혈리이 형은 살피쇼셔” 학식(장수정) 상셔의 말을 듯고 오리 목묵허든니 /<성대본> 권지상 66a: 한림(김희경)이 본 체 아니코 학사(장수정)다려 왈 “왕이 드러오다가 도로 피흐문 우리 직시 이러 맛지 아니할 혐의히미라 일경 이후의 그 칙을 면치 못할 거시니 형은 살피 무례치 마르쇼셔” 한디 학식 한림의 겁흔을 보고 우으며 오리 목묵허든니 /<충남대본> 권지삼 5b: 김 상셰 본 체 아니흐고 장 상셔다려 왈 “왕이 드러오다가 피흐문 우리 즉시 니러 맛지 아니흔를 혐의히미라 이후의 실정 그 모칙을 면치 못허리니 형은 습가 조심하라” 장 상셔 상셔의 겁흔을 보고 우스며 /<세창서관본> 65: 한림(김희경)이 못 본 체흐고 학사(장수정)다려 왈 “왕이 드러오다가 피함은 반드시 우리 즉시 이러 맛지 아니함을 혐에[의]함이라 이후에 일경 그 칙을 면치 못힐 거시니 형은 살피 무례치 마르쇼셔” 한디 학식 한림에 겁함을 보고 우스며 오리 목묵허다가

모습을 은폐시키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대목에서만큼은 김희경이 장수정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망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김희경과 장수정의 대외적 활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김희경전>의 배경이 되는 원나라는 역모를 꾀한 위국·남국(혹은 형국)과 전쟁을 한다. 이때 장수정은 대원수가 되고 김희경은 부원수가 되어 참전하는데, 여기에서 <한중연본> 외 7종과 <고려대본>의 서사 진행이 크게 갈린다.

표-6

이본 명칭 및 면수	④ 장수정이 김희경을 구출함
가. <한중연본> 권지이 44b~45a	남왕이 수십여 장을 거느리고 상세(김희경)를 써 치니 상세 경히 위급 홀지라 당 원쉬 크게 혼 소릭 지르고 말을 치쳐 드러굴시 철니봉구의 바람과 습척니검의 신기호를 겸하여는지라 말이 향하고 칼이 번드이 는 곳의 뉘 곱히 당하리오 초기긋치 다 뿌리져거늘 점점 드러가니 <u>상</u> <u>세 좌우로 흠돌하야 능히 버셔나지 못하고 탄식호를 마지아니터니 서</u> <u>남각 상 열니는 곳의 혼 밍중이 여임무인지경하야 드러오니 그 세 경</u> <u>히 밍호 그튼지라 상세 학수(장수정)의 위풍을 인하야 적장을 버히며</u> <u>쫓쳐나오니 이적의 원쉬 상셔를 구하여 누을시</u>
나. <국중본> 권지이 39~40	남왕이 수십여 장을 거나러 상셔를 써치거늘 상세(김희경) 경히 위급 홀디라 원수(장수정) 크게 혼 소릭을 지르고 말을 모라 쫓치니 텨리용 구와 삼턱검의 신기호를 겸하야는지라 말이 향하고 칼이 번드이는 곳 의 적장의 뉘 능히 당하리오 초기갓치 짓쳐 드러가니 <u>상세 좌우로 흠</u> <u>돌하되 능히 버셔나[느]지 못하고 탄식하더니 서남각 상의 혼 밍장이</u> <u>무인디경으로 드러오니 그 형세 경히 밍호 갓든지라 상세 즈셔이 보</u> <u>니 이 곳 학신(장수정)라 상세 학신[스]의 위풍을 보미 의외 동하야</u> <u>적당을 버히고 쫓쳐나오니 원수 상셔를 구하야 도라올시</u>
다. <숙대본A>	없음.
르. <성대본> 권지하 12a~12b	위 남 양국 왕의 장수 수십여 장이 도둑(김희경)을 둘러싸고 버고함성 의 어우로져어 왈 “원장은 목숨을 앓기거든 빨리 <u>황[황]복하라</u> ” 혼난 소릭 천지 진동하난지라 원쉬(장수정) 도둑의 위급호물 보고 소릭을 버덕갓치 지르며 말을 달녀 드러가니 그 향하난 곳마다 검광이 빛나 며 적장의 머리 썩러지난 거시 추풍낙엽이라 죽음이 뵈 갓타니 감히 디적할 지 업다라 이의 원쉬 도둑을 구하여 나오니라 <u>첩의 도둑이 결</u> <u>겹이 싸여 병세 철통갓타며 죽기로써 좌충우돌하되 능히 버셔나지 못</u> <u>하여 하날을 우러러 탄식하되 “니 적장을 업수이 여기다가 오날 이곳</u> <u>의서 청춘을 맛찰이로다”</u> 하며 탄식호를 마지아니터니 <u>홀연 장 원쉬</u> <u>드러와 구하를 보고</u> 혼연히 다시 칼을 둘러 원수의 뒤를 조츠 나을시

<p>㉑. &lt;충남대본&gt; 권지삼 20a~21a</p>	<p>양국왕이 장슈를 호령하여 도독(김희경)을 둘러싸고 뇌고합성이 천지 진동하며 위여 왈 “원장은 목숨을 악기거든 빨리 항복하라” 하는 소리 틈산이 문어지닌 듯 원슈(장수정) 위급함을 보고 달려 드러가니 향하는 곳 검광이 빛나며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이라 감히 디적할 지 업는 지라 이의 도독을 구하여 나오니라 도독이 겹겹이 쓰여 버셔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왈 “너 적장을 엄[엄]슈니 여기다가 이곳의셔 청춘을 마츠리로다” 하며 탄식함을 마지아니하더니 문득 원슈의 뒤를 조조 나올시 원슈 정신을 가다듬어 좌우춤흔니 티양검이 숨춘의 니화 춤추는 듯하더라 도독이 원슈의 위엄을 의지하여 귀운을 슈습하여 원슈로 더부러 본진의 도라오니</p>
<p>㉒. &lt;서울대본&gt; 권지이 31b~32b</p>	<p>위왕이 뒤호로 군스를 모라 남명왕으로 더부러 회경열 둘러싸니 회경이 말일 달너 좌춤우돌흔나 능히 버셔나지 못하리 시간이 급하여 만분위티흔지라 이석 장 원슈 단세를 바라보니 회경이 적진 중의 싸이여 시급허거날 필마단기로 티양검열 두르며 위딘 중의 다다르니 스면 팔방으로 양국대병이 겹겹히 둘러시미 비조차도 능히 통하지 못홀지라 원슈의 티양검이 날 빛출 응하여 흥 번 두르미 디적허 리 업시니 적진열 헛치고 지쳐 드러갈시 장슈 길열 막거날 티양검으로 치니 그 장슈 말게 나려지닌지라 중영으로 향하더니 또 흥 장슈 길열 막거날 티양검이 흥번 번드기미 그 장슈의 머리를 쏘 버이고 중영의 다다르니 위왕과 명왕이 슈십여 장으로 더부러 회경 일신열 둘러싸고 항복하라 흥난 소리 텃지 딘동흔는지라 장 원슈 크게 고향하며 말일 달너 드러 갈시 말일 비호 갖고 같은 추상갓하여 무인지경쳐로 지쳐 달너 드니 계장의 머리 추풍낙엽이라 우피갓치 소리하며 나는다시 다라들러 위왕과 명왕이 능히 정신열 슈습지 못하더라 회경이 장 원슈 이르러 구함열 보고 정신열 가다드며 합력하여 좌춤우돌흔니 양국 적병이 바람의 구름 훗허지닷 흥는지라 장 원슈 김 상셔를 구하여 본진의 도라오니</p>
<p>㉓. &lt;숙대본B&gt; 권지단 92a~93a</p>	<p>잇석 남명왕이 군스를 조발하여 둘러싸며 급히 치니 회경이 회[회]심 중의 잇난지라 좌춤우돌흔되 능히 버셔나지 못하여 만분위티흔지라 잇석 원슈 필마단중으로 위딘 중의 다다르니 스면팔방의 양국대병이 겹겹히 둘러시니 진세 구드 철석 갓튼지라 장 원슈 칼을 들어 진을 헤치고 들어가니 일원디장이 길을 막거늘 티양검을 들어 한번 치니 발서 말게 나려지닌지라 중영을 향하여 죽천 드러가니 위왕과 남명왕이 슈십 디장으로 회경의 일신을 둘러싸며 항복하라 흥난 소리 천지 진동하난지라 장 원슈 크게 고향하여 말을 달여드려 가니 말은 비룡[룡] 갖고 금광은 번기 갓튼지라 적장의 머리 춘[추]풍낙엽이라 우레 갓치 소리하여 나는다시 드러가며 회경을 구하여니 회경이 또 흥 정신을 가다듬어 흡세하여 급히 지치니 양장의 용뎡을 보고 팔십여 만 적병이 훗터지닌지라 중 원슈 김 상셔로 더부러 번진으로 도라오니</p>
<p>㉔. &lt;신구서림본&gt; 51~52</p>	<p>남 위 남왕이 슈십 장을 다리고 도독(김희경)을 웨워싸고 침복 소리와 고각이 제명하며 ‘명장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진동허거늘 원슈(장수</p>

	<p>정) 도독에 위퇴호를 보고 크게 흐 소리 지르고 말을 치쳐 썬 티를 헛치고 드러가니 그 용뎡호와 티양금에 신귀호를 곁하니 말이 향하는 곳에 격진 장졸에 머리 추풍낙엽갓치 썩러지더라 <u>츠시 도독의 좌출우 돌하나 굿으미 칠통 갖흔지라 능히 버셔나지 못홀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왈 “니 적장을 경이 너기다가 이곳에 와 속결업시 명을 맞치 리로다”</u> 흐더니 문득 진세 요란하며 장 원수 나는다시 드러와 구호를 <u>보고 다시 칼을 드러 원수를 좇츠 나을시 낭인이 정신을 가다듬어 좌우충돌하니 위풍이 늑늑하고 티양검 밋치 일신을 돌넛스니 비록 용뎡 흐 장졸이나 원수에 칼을 피치 못흐야 목을 늘히여 죽음을 밋으미 죽어미 묘 갖고 피 흘너 닉가 되었더라</u></p>
<p>자. &lt;세창서관본&gt; 76~77</p>	<p>위 남 양국 왕이 각각 제장을 거느려 원장(김희경)을 둘러싸고 버그환 성으로 어로되여 왈 “원장은 날기 업스리니 목숨을 앗기거든 썩이 항복하라” 하는 소리 텨디 진동하는지라 원수(장수정) 도독의 급호를 보고 소리를 벽낙갓치 지르며 달너드러가며 동서치빙하니 그 다닷는 곳마다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갓치 썩러지니 죽음이 뵈 갖고 피 <u>흔(흠) 나 시니 되니 뉘 감이 덕적호리오</u> 이에 도독을 구호여 나오니 <u>도독이 처음에 겹겹이 싸이여 병세 칠통 갖더니 죽기로써 좌우충돌호되 능히 버셔나지 못흐야 하늘을 우러러 탄식호되 “니 적장을 경이 역이다가 오날 이곳에서 청출을 맞치리로다”</u> 흐고 차탄호를 마지안터니 <u>홀연 적군이 스산분개호며 일원소장이 진중에 돌입호야 횡횡호거늘 도독이 정신을 차려 츠서이 보니 이 곳 장 원수라 디회호야 그기 구호를 보고 다시 칼을 드러 원수 뒤를 좇차 나을시 원수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좌우로 충돌호야 티양검 두르느 곳에 삼출에 리화 날고 추풍에 낙엽갓치 적장의 머리 썩러지니 위 남 장졸에 죽음이 적시여 산이라 도독이 원수의 위엄을 의지호야 괴운을 수습호고 휘검참장호며 지쳐 나오니 격진 장졸에 죽음이 구산 갖고 피 흘너 강수 되었더라</u></p>

ㄷ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 8종을 보면 김희경이 첫 번째 전투에서 위국과 남국의 포위에 휩싸이고, 이때 장수정이 나타나 여성영웅의 위용을 한껏 드러내며 구출해준다. 그런데 유독 ㄷ에만 구출담이 없고, 다른 이본들과 군담 진행 양상이 다르다. 여타 이본의 군담은 ‘①양국 장수들의 싸움-②김희경이 출전하여 포위됨-③장수정의 김희경 구출-④남왕의 황성 침입-⑤장수정이 위왕을 성에서 나오게 하여 격파함-⑥장수정이 김희경을 도성으로 보내 황제를 구출함’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ㄷ의 군담은 ‘①양국 장수들의 싸움-②김희경이 위장 방호연을 사로잡지 못함-③장수

정이 방호연을 죽이고 위국의 진지를 빼앗음 ④장수정이 위국 도성에 들어가 위왕을 죽임 ⑤형왕도 죽인 후 형국을 안무함'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로 볼 때 ㄷ에 구출담이 없기는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김희경이 죽이지 못한 위나라 맹장 방호연을 장수정이 단번에 죽이는 것으로<sup>17)</sup> 되어 있어 그 맥락은 나머지 8종의 이본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sup>18)</sup> 그리고 ㄷ을 제외한 8종의 이본 모두 김희경이 장수정의 만류를 듣지 않고 적장을 알보아 출전하였다가, 위왕과 남왕(혹은 형왕)의 협공에 의해 포위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김희경의 전장에서의 경솔함과 장수정의 뛰어난 활약상이 상반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고려대본>에는 이와 사뭇 다른 설정이 보이는데, 장수정이 적진에 포위되고 김희경이 그를 구출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대본> 권지이 26a~27a: 잇씨 남왕이 디로호여 군스를 지축호여 겹겹이 쓰며 급피 치니 고각함성이 천지의 진동호고 시석이 비 오듯 하니 그 굿드미 철통 갖더라 원수(장수정) 비록 영웅이나 괴력이 소진호고 인마 곧 꿩호여 능이 버셔나지 못호고 정이 위급호더니 잇씨 부원수 김희경이 진전의 나셔 싸움을 보다니 무수한 적병이 밀밀충충이 원수를 둘러싸물 보고 디경호여 미한으로 더부러 일시의 말을 달너 적진을 헤치고 드러가다니 한 장

17) <숙대본A> 권지중 42b~43a: 정니 수풀을 지나더니 호련 말 뒤의셔 불너 왈 “호연은 장수정을 아는다” 호연니 디경호여 말혀를 잡으며 급피 도라보니 일원쇼장니 자 급투구를 쓰고 빅화 전포을 낚고 황토 말을 타스니 발셔 말 머리가 등에 다운지라 호연니 미쳐 손을 놀리지 못호여 텃양급니 빗나며 한 줄 무지기 공중에 일어나며 호연에 머리 말하에 내려지니 니는 디원수 장수정일더라

18) 강승목에(앞의 논문, 57~60쪽.) 의하면 낙질본 중 군담이 포함된 이본은 총 9종이며, 김희경이 장설빙을 구출하는 이본은 총 4종(김동욱본 A·F, 정명기본 A·B)이라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개인 소장본인 정명기본 2종을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김동욱본 A는 군담 이전에 필사가 종결된 이본이었다. 그리고 김동욱본 F는 구출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숙대본 A와 군담 진행 양상이 유사하였다.

수 길을 가르막거늘 원수 티로하여 창을 드러 적장을 질너거늘 말기 니려치고 급피 드러가며 장 원수를 찾더니 잇적 장 원수 평성 기력을 다하여도 능이 버셔나지 못하고 칼을 드러 죽결코져 하디니 문득 동남으로서 적진이 물결 헤어지듯 흐거늘 원수 정신을 수습하여 즈셔이 살펴보니 웃듬 장수는 김희경이오 부장은 미한이라 원수 크기 깃거 시랑(김희경)을 쓰라 삼장이 합너하여 죽치니 적병의 머리 니려지는 거시 추풍낙엽갓더라 좌충우돌할시 감이 당힐 즈 업다라

위의 인용문을 보면, 검술과 병법을 두루 익힌 장수정이 적에게 포위되어 자결을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김희경이 나타나 구출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처럼 <고려대본>만 포위당한 자와 구출자의 설정이 반대인 것은 작품의 서사 지향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나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녀의 우월성이 군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려대본>을 포함한 완질본 10종에서 문재(文才)로는 김희경과 장수정이 대등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과거 시험에서 우열을 정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장원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장수정이 선관에게서 천서와 보검을 받고 무예를 터득하면서 무(武)에 있어서는 장수정이 김희경보다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에 장수정은 대원수가 되고, 김희경은 부원수가 된다. 그에 걸맞게 <한중연본> 외 8종은 장수정의 대원수로서의 활약을 충실히 구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본>은 여성이 대원수의 지위에 있더라도 부원수인 남성에게 구출된다는 상황을 연출하여 남성 영웅의 우월성을 직접적으로 고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영웅의 우월성은 자연스럽게 반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는 ③에서 보았듯이, <고려대본>에 장수정의 연왕 경계 대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 3. 고려대본의 가치 및 위상

본 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토대로, 다른 이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고려대본의 이본적 가치 및 위상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짚고 넘어가겠다. 앞서 정준식은 고려대본과 한중연본을 한 계열로 묶어 ‘국중본 계열’이라 지칭하면서도, 고려대본은 문맥이 부자연스럽고 세부 구절이 축약되어 국중본과는 전혀 다른 필치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고려대본은 국중본에서 한중연본으로의 흐름이 주류일 때에 방계를 이루며 별도로 전승되었고,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이 함께 전승되는 시기에 두 계열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택한 이본이라 하였다.<sup>19)</sup> 그렇다면 2장에서 살핀 고려대본만의 돌출적인 특징들이 단순히 고려대본이 서로 다른 두 계열의 이본을 취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까.

한편, 강승묵은 ‘이소저의 남장 행적’이 있는 한중연본과 고려대본을 ‘한중연본 유형’이라 포괄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려대본의 도입부가 같은 계열 내 이본들과 판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를 고려대본이 1907년 이후에 필사되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성균관대본 유형의 도입부만 저본삼아 필사했기 때문이라 했다.<sup>20)</sup> 필자 역시 고려대본이 한중연·성대

19) 정준식(2007), 앞의 논문, 265~267쪽. 이외에도 정준식은 254쪽 각주 24에서 ‘한중연본의 후반부에 국중본의 내용을 군데군데 생략한 흔적이 보이므로 한중연본은 국중본을 모본으로 삼아 필사된 이본’이라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저본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두 이본을 면밀히 대비해본 결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기보다는 하나의 저본에서 파생된 각기 다른 이본일 가능성이 더 컸다. 그 이유는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나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 한중연본에만 생략된 부분 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중연본과 국중본이 문장 표현이나 크고 작은 구와 절에서 차이가 발견되며, 국중본이 한중연본보다 부연된 구절이 많다는 것은 각 이본의 저본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20) 강승묵, 앞의 논문, 43~50쪽, 82쪽. 이외 강승묵은 87쪽과 95쪽에서 서울대본을 성균

본보다 후대에 생성되면서 여러 이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고려대본만의 특이점들을 여러 이본의 수용 탓으로만 돌리고 간과해 버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작품 창작에 작가의 목적의식이 투영되듯이, 이본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도 이본 파생자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폈듯이 고려대본은 나머지 9종의 완질본에 없는 남성 우월 서사가 나타난다. 물론 네 대목을 제외한 나머지 서사가 다른 이본들과 대동소이하고, 같은 계열인 한중연·국중본과는 중심 서사가 거의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대목만을 가지고 남녀의 우월성을 판가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네 대목에서 고려대본에만 나타나는 변별점은 분명 남녀의 우월성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대본의 필사자는 왜 이러한 변개를 하였을까. 그 이유를 고찰하기에 앞서 이 작품의 표제와 유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희경전>은 표제에 남성 주인공 김희경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실상은 여성영웅 장설빙(장수정)의 서사이다. 그렇기에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약을 하는 여성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의 여성영웅소설이라면 <정수정전>, <홍계월전>, <이형경전(혹은 이학사전)>처럼 서사의 주체가 되는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나 관직을 제명으로 삼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김희경전>은 대다수의 이본이 남주인공인 김희경의 이름과 관직을 표제로 삼고 있다.

---

관대본 유형에 속하는 비상업적 필사본으로 설명하면서도, 속대본A와 함께 세책본으로 파악하고 있어 논의가 상치되고 있다. 필자가 살펴본 결과 속대본A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세책본에 부합하지만, 서울대본은 필사기나 여타의 표지 등에서 세책본이라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표-7

	이본 명칭과 분포수
① 남성 주인공 표제	<김희경전> 18종, <김상서전> 2종, <김씨효행록> 1종
② 신물(信物) 표제	<금환기봉> 2종
③ 여성 주인공 표제	<여자충효록> 1종, <여중호걸> 1종, <장씨효행록> 1종

위의 표를 보면 완질과 낙질을 포함한 총 26종의 이본 중, 남성 주인공으로 표제를 삼은 경우가 무려 21종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주인공으로 표제를 삼은 경우는 단 3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여자충효록>과 <여중호걸>은 여주인공을 염두에 둔 제명임에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장설빙 혹은 장수정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또 한중연본 <장시효행록>(낙질 필사본)은 표제에 여성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장에 ‘김씨효행록 권지팔 종’이라는 기록과 뒤표지에 ‘金熙景傳 下’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곧 ‘장씨효행록’이라 하여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으나, 저본 혹은 이미 주류를 이루던 이본들의 제명을 무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김희경전’이라는 한문 제명 및 ‘김씨효행록’이라는 표제와 상치되는 제명을 뒤에 따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결국 ①의 표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작품의 원본은 남성 주인공으로 표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활약하는 여성영웅소설 형태였으리라 추측된다. 완질본과 낙질본의 내용을 통틀어보았을 때, 김희경이 장설빙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이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의 내용은 애초부터 철

21) <여자충효록>과 <여중호걸>은 1900년대 초에 생성된 활자본이며, <장씨효행록> 역시 제명 방식의 특이성으로 볼 때 후대에 생성된 이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 이본은 남주인공으로 제명을 삼은 주류 이본들이 파생된 이후에 생성되었고, 여성의 영웅성이 더 두드러지는 내용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명을 고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저하게 여성영웅을 서사 주체로 설정하고 창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이본이 제명에 남성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이미 대중성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유통되던 영웅소설의 제명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대봉전>, <황운전> 등과 같이 남녀가 동등하게 활약을 보이는 서사 구조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sup>22)</sup> 결국 제명에 내세운 것이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반드시 작품 내 활약 주체와 연결되지 않는다. 또 고려대본의 ‘明治 四十(1907년)’이라는 필사기를 준신한다면, 고려대본 역시 후대에 생성된 이본이 된다. 그렇다면 고려대본은 원본 계열의 제명 방식 및 서사 체계는 그대로 따르되, 2장에 살핀 네 대목에서만큼은 개작자의 의식을 투영한 독특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추측건대 고려대본의 필사자는 <김희경전>의 후대 독자로, 거의 모든 이본들에서 여성 영웅이 우월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감을 가졌던 듯하다. 이에 “김희경전”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남성 영웅이 우월성을 차지하는 모습을 몇몇 대목에서 그려낸 것이다. 수많은 장면 중 굳이 여주인공의 존재를 부각하는 ‘머느리감 찾기 대목’과 ‘연왕 경계 대목’을 생략하고,<sup>23)</sup> ‘연연해하는 사람’과 ‘구출자’를 반대로 설정한 것은 치밀한 계획과

22) 물론 <이대봉전>과 <황운전>은 이본 계열에 따라 남녀의 활약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김희경전>은 그 중에서도 여성 영웅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이본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3) 고려대본은 169,000여 자로, 한중연본이 150,000여 자, 국중본이 144,000여 자인 것에 대비해 볼 때, 상당한 분량을 자랑한다. 따라서 목적의식 없이 지면상의 문제로 내용을 축소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같은 계열인 한중연·국중본에는 없고, 고려대본에만 확장되어 있는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희경 부친의 致仕 이유, 김희경의 인세 하강 이유, 최부인 소개~김희경의 여장 탄로(15쪽), 장수정의 이 참정 治喪 및 이 참정 부인의 혼인 당부, 김희경과 장수정의 가을 경치 감상, 김희경이 장소저와 혼례를 치르고 공주궁으로 떠남, 삼부인의 모임에 끼어든 김희경에 대한 공주와 최소저의 질책, 삼부인 모임 장면과 이위(이소저)에 대한 대화, 김희경의 우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이루어진 적극적 개작이다. 이를 고소설의 개작 전략 및 변이 원리(서사적 의문의 해소, 특정 인(동)물 편들기, 논쟁적 의의 제기, 빈틈 메우기)에<sup>24)</sup> 대입해본다면 고려대본은 남주인공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임으로써 특정 인물을 편들고, 표제에 맞게 남성 영웅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논쟁적 의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대본의 필사자는 서사적 긴밀성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생략과 변경을 시도하고, 표제에 걸맞은 내용을 일정 부분 구축해 넣음으로써 작품을 공고하게 만들고자 시도하였다고 하겠다.<sup>25)</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김희경전> 완질본 중 고려대본에만 남성 우월 서사가 삽입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낙질본의 경우에는<sup>26)</sup> 고려대본B만이 ①과 ② 대목에서 고려대본과 일치한다.<sup>27)</sup> 이는 소장처가 같은 두 이본이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고려대본B에 ③의 대목이 뚜렷이 존재하며, 그 서술 양상이 속대본A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sup>28)</sup> 그 이유는 고려대본B의 저본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인데, 장수정의 연왕 경계 대목에서부터 필체 및 문체가 급

---

승상 임명, 김희경 외 7부인이 승천할 때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 이 대목들은 대체로 세부적인 차이인데, 한중연·국중본의 서사 공백을 메워주는 부분도 더러 있다. 그리고 다른 계열의 이본에는 이 대목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24) 정충권,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71, 2005, 533~537쪽. 정충권이 제시한 네 가지 개작 원리는 판소리계소설인 <토끼전>을 대상으로 추출한 것이나, 다른 유형의 고전소설에도 충분히 대입해볼 수 있다.

25) 대부분의 한글 고소설 이본은 서사적 틀을 유지하면서 미시적 차원에서 변경된다. 그런데 <현수문전>의 경우 4종의 한글본(필사본 3종, 방각본 1종)이 원작의 서사 틀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결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원작 서사에 대한 독자 비평의 적극적 표출'이라는 주수민의 견해에 공감하는 바이다.(주수민,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경향과 그 의미-<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 2016, 101~104쪽.)

26) 아래 표는 낙질 이본 11종을 대상으로 ①~④ 대목의 유무를 표시한 것이다. <김희경전>의 낙질본은 총 16종이지만, ①~④ 대목이 모두 낙장인 이본 3종(국민대본, 김동욱본 E·G)과 확인 불가능한 개인소장본 2종(정명기본 A·B)은 제외하였다.

변하고 있는 점이 그를 증명해준다. 그리고 고려대본B가 낙장인 관계로

	①	②	③	④
1. 고려대본B	△	△	○	落
2. 국중본B	○	○	落	落
3. 김동욱본A	落	落	○	落
4. 김동욱본B	落	落	落	○
5. 김동욱본C	○	○	落	落
6. 김동욱본D	○	○	落	落
7. 김동욱본F	落	落	○	○
8. 단국대본	○	○	×(생략)	○
9. 연세대본	落	落	×(생략)	○
10. 한중연본B	落	落	落	○
11. 한중연본C	○	○	落	落

- 27) <고려대본B> ①: 일일은 평장이 회경드려 왈 “드르미 느라여서 설과흐신다 흐시니 너는 빳비 올느가라” 흐고 서찰을 다가 쥘며 왈 “너희 외숙 석 티후 툃니 황성의 잇슨 지 여러 희의 흐 번도 소식을 모로니 니 편지를 전흐고 과거불 쫓을 통흐 즉 범스를 받드시 쥘선흐리이 갑히 간슈흐여 실슈치 말느” 흐디 공즈 바다가지고 지빅흐직 흐 후 집을 썬날식 /②: 공직 황공흐여 바드 낭중의 늦코 스려[례]왈 “……말습니 첩첩 경이 산히갓웃오나 무경현 세월리 저물고져 흐오니 후일 드시 모이물 바라옵느이다” 쇼계 썬흐 타인의 우음을 바들가 두려 영춘으로 흐여금 이별을 고흐여 왈 “날리 임의 저무러쓰오니 청컨디 평안니 흥흐흐스 후일 언약을 잊지 마르쇼셔” ……공직 쥘테 잇드가 허드현 설화를 듯고 기리 읊흐여 왈 “쇼제의 흐시는 바을 보오니 목석이 안니여든 엇지 비창치 안니리요 그러느 천금지구를 보중흐스 후일 서로 만느기를 기드리옵쇼셔” 쇼계 답왈 “첩의 일싱을 오날날 낭군코 의탁흐옵느니 더럽드 바리시면 흥안박명을 속절업시 빅두음을 부를가 흐나<흐느>이다” 공직 직슴 위로헌 후 흐죽고 경성으로 흥흐여 가이라
- 28) <고려대본B> ③: 장수경으로 연왕 티부를 허이시고 김희경으로 제왕 티부를 허이스 왕을 선도로 인진허라 허시이……일일은 연왕이 너전으로 드러가디이 날이 저문 후 외전 나와 스부의 유부를 살피다가 홀연 눈이 마쵸치미 놀나 몸을 도로히려 허거늘 장 상셔 괴동치 아이허고 시이불견허이……언파의 썬우을 명허여 큰 밍을 가져오라 허여 친이 왕을 달초허여 십 도의 이로이 유혈이 임이허미 왕이 압푸를 견디지 못허거늘 김 승세 연망이 나아가 밍을 잡고 그만 긷치를 권허이 상셔 비로쇼 밍을 늦코 일장을 경계[허]허디 언식 강기허고 괴위 엄열허여 설상한미 갓트이 김 상셔 그 강직허물 칭복허더라

④의 대목까지는 살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고려대본B는 ①, ②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고려대본과 동일한 지향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sup>29)</sup>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대본은 주류 이본들의 서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장면에 한하여 개작이 시도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곧, 철저하게 여성 우월을 견지한 여러 이본들의 영향권 내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피력해낸 이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대본은 당시 주류를 이루던 이본들의 내용을 답습하지 않고, 개작자 나름의 남성 중심 서사를 투입시킨 유일한 완결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표면적인 실상 파악만 이루어졌던 고려대본의 특징을 재고찰하고, 남성 우월 서사의 측면에서 이본적 가치 및 위상을 고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고려대본은 남녀 결연 서사에 있어서, 남성의 입신양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별의 슬픔을 담담히 감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출장입상 대목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황자(皇子)인 연왕을 질책하는 장면이 통째로 삭제되었고, 전쟁터에서의 여성의 뛰어난 영웅성이 약화되어 오히려 남성에게 의해 구출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물론 본고에서 주목한 일부의 서사 대목은 중심 서사 단락을 한층 더

29) 고려대본B의 대본이 바뀌기 이전까지 고려대본과 고려대본B는 서사가 동일하고 표현상의 사소한 차이만 나타난다. 따라서 고려대본B가 초반부에 고려대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려대본B의 저본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점으로 보아, 고려대본이 많은 필사자들의 공감을 사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고려대본은 필사자 1인의 개인 만족 및 불만 표출을 위해 탄생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세분화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서사 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내적 활약상을 은폐하는 한편으로 남주인공의 외적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③과 ④ 대목은 이 작품이 명확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여성 영웅소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 관리로서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것은 유형성 및 원본 계열의 서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담긴 의식을 읽어내는 작업 역시 유의미하다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고려대본은 총 10종의 완질본 중, 후대 독자의 반감이 투영된 독특한 이본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주류를 이루는 여성 우월 서사의 적극적 개작 형태’이자, ‘남성의 우월성이 투입된 유일한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위상을 정립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고려대본 <김희경전>
- 고려대본B <김희경전>
- 국중본 <김상서전>
- 국중본B <김희경전>
- 김동옥본A <김희경전>
- 김동옥본B <김희경전>
- 김동옥본C <김희경전>
- 김동옥본D <김희경전>
- 김동옥본F <김희경전>
- 단국대본 <금환괴봉>
- 서울대본 <김희경전>
- 성대본 <김승서전>
- 세창서관본 <녀중호걸>
- 숙대본A <김희경전>
- 숙대본B <김희경전>
- 신구서림본 <녀중효록>
- 연세대본 <김희경전>
- 충남대본 <김희경전>
- 한중연본 <금환괴봉>
- 한중연본B <장시효행록>
- 한중연본C <金氏孝行錄>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승목, 「<김희경전> 異本の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14쪽.
-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75쪽.
- 정준식, 「국립중앙도서관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한국문학논총』 44,

2006, 127~155쪽.

정준식,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요인과 자료적 가치」,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2006, 241~271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2007, 237~278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2008, 173~203쪽.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1, 2009, 51~74쪽.

정준식, 「<김희경전> 원전 재구」, 『한국문학논총』 55, 2013, 89~119쪽.

정준식,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한국문학논총』 68, 2014, 93~115쪽.

정준식, 「숙대본 A를 활용한 <김희경전>의 정본 구축 방안」, 『어문학』 132, 2016, 141~167쪽.

정충권,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71, 2005, 521~539쪽.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주수민,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 경향과 그 의미-<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 2016, 83~109쪽.

ABSTRACT

Variant Version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KimHeeGyeongJyeon,  
a Version Housed by Korea University

Lee, Hu-nam

KimHeeGyeongJyeon was based on the male hero Kim Hee gyeong, but it was a female heroine novel played by a female heroine, Jang Seol bing.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value and phase by examining the variant version characteristics of KimHeeGyeongJyeon, a version housed by Korea University.

Compared with nine kinds of complete of KimHeeGyeongJyeon,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skips the whole role of the heroine and omits her exceptional abilities altogether. And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is a variant version that sets the male character to be superior to the female character by rever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le and female partnership and the role in the military. In this case,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is the only variant version of the manuscript in which male superiority expressed, and it can be given the value and phase as a variant version in that it is an actively adapted version of the original narrative. In addition, this suggests the direction of acceptance of the readers as the future readers' expression of antipathy.

**Key Words** KimHeeGyeongJyeon, Korea University version, heroine novel, superiority, readers

논문투고일 : 2017.03.31  
심사완료일 : 2017.05.04  
게재확정일 : 2017.05.15